

사랑없는 세상에 띄우는 사랑의 메시지 술베이지의 노래

편안하게 아나운서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수필 집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꼭!'에서부터 장래 아나운서의 필독서가 되다시피 한 '아나운서 되기', 화가 한인현씨의 이야기를 적은 '이계진이 쓴 바보화가 한인현 이야기' 등 방송 못지 않게 꾸준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계진(57·방송인)씨가 사랑 없는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술베이지의 노래(주생각의 나무)'라는 소설을 냈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필 종류를 주로 다루어왔던 그가 내놓은 첫 번째 소설 '술베이지의 노래'는 소설이라고 하지만 예의 수필만큼이

나 섬세한 문체로 다가온다. 어쩌면 그 섬세한 문체 때문에 소설 속 두 주인공 '시향'과 '효리'의 서로에 대한 관심이 지독하리 만치 아름답게 느껴진다.

사랑은 따뜻한 눈길 그리고 끝없는 관심!

남녘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어느 날 밤 송광사 불일암에서 나는 범정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차 향기가 가득한 방에서 나는 어려운 청탁을 드렸다.

"스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

"제가 사랑에 관한 아주 유치하고 통속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처사가요?"

"네"

스님께선 의외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다시 차를 한 잔 마셨다.

46년 원주출생인 이씨는 국문학도 출신으로 방송보다 글 쓰기를 먼저 배웠다. 또한 군대에서 '러브스토리'를 읽고서 언젠가 것처럼 아름다운 소설을 쓰리라고 마음먹었던 그로서는 이



번 소설을 통해 원래의 고향 문학의 세 계로 회귀했다고 할 수도 있다.

고향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의 접속 코드는 그에게 향적(香積)이란 불명을 지어준 영원한 스승 법정.

“스님, 스님께선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글로 써주세요.”

스님은 곧 지필(紙筆)을 꺼내시어 이렇게 써주셨다.

‘사랑은 따뜻한 눈길, 그리고 끝없는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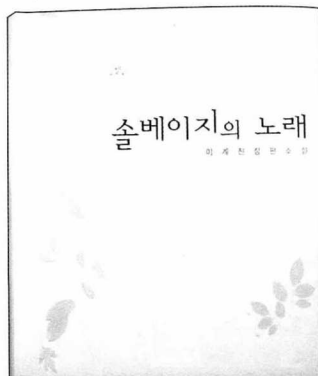
법정을 만나 사랑의 의미를 물었을 때 이미 소설의 상당 부분이 진행됐지만 서울로 올라와 탈고에 이르기까지 이씨는 여러 달 동안 ‘글의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세간의 잣대로 보자면 소설엔 두 번의 불륜이 나온다.

소설 속 효리와 시향의 관심 사이엔 스물 다섯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으며, 효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해병 소령과의 따뜻한 눈길 사이도 어림 잡아 스물 다섯의 차는 나 보인다.

하지만 단 두 번의 만남으로 끝없는 관심을 이야기하는 소설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함부로 내뱉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불륜으로 보인다.

“누구나의 가슴속에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그래서 내보일 수조차 없는 느낌일 때를 정말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을 빌려 누구나의 그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욕망의 표현일 거야. 아주 일방적인 욕망! 사랑은 오히려 말 없음이라고 생각해..... 한용운님도 ‘사랑의 존재’라는 시에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은 아닙니다’ 라고 했지.”



나이 차이를 가지고 불륜을 따질 수 없다는 생각은 현실 속 이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성매매가 풍미하는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이나. 비밀스럽고, 들키면 달아날 세라 감추고 싶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얼굴은 흥당무처럼 빨강게 달아오르는 것이 사랑 아니냐.”

‘사랑한다고 속삭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 누구도 함부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다소 고지식해 보이는 이씨의 사랑학이다.

하지만 그런 이씨의 사랑학이 그대로 베어난 소설이었기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사랑 없는 세상’에 더 진한 감동의 메시지를 던질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세간의 풍속대로 누구나 쉽게 의무적으로 말하는 사랑이었다면 소설 속 시향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무모한 자신과의 싸움에 결코 도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설은 잠깐의 외도

여전히 아나운서 이계진

소설 제목 ‘솔베이지의 노래’에서 솔베이지는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작품 ‘페르퀀트’에 나오는 인물로 방랑자이며, 몽상가인 연인 페르퀀트를 백발이 되도록 기다리는 여인이다.

헨리크 입센의 부탁으로 역시 노르웨이의 위대한 음악가 그리그(Grieg, Edvard Hagerup)가 시극을 위해 작곡을 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을 기다린 페르퀀트가 너무도 힘든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하자 슬픔에 겨운 솔베이지의 아픔을 노래한 곡이 ‘솔베이지의 노래’이다.

2003년 2월 28일에 발행된 ‘솔베이지의 노래’는 (주)생각의 나무에서 기획했으며, 한영문화사(대표 홍사룡)에

서 인쇄를 맡았다.

책의 외견에 대한 이계진씨의 만족도는 좋아 보였다.

이미 몇 번의 출판 경력이 있는 이씨는 출판사 선택에서 일부러 기존 출판사를 배제했다고 한다.

“딸꾹! 같은 경우엔 반응이 좋아서 출판사도 재미 좀 봤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내 소설을 출간하는데 있어 소설 이외의 것이 곁들여 질까 봐 일부러 모르는 출판사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내 손에 쥐어진 책은 너무 맘에 들었어요. 편집과 판형, 하드 커버 등이 내 작품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침체에 빠진 음반시장에서 대 가수 김건모의 컴백을 환영하는 것처럼 대작가는 아니지만 장래 아나운서의 필독서가 되다시피 한 스테디셀러 ‘아나운서 되기’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에서 나타난 60만 부라는 판매

실적을 감안할 때 방송인 이계진의 외도는 출판 및 인쇄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살펴보기 위해 발행한 초판의 반응은 의외로 좋은 상태이며, 곧 재판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틈틈이 ‘글 쓰기 작업’을 한다는 이계진씨는 소설은 잠깐의 외도일 뿐이며 결국 자신은 방송인으로 불리길 원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쓸게 없으면 펜을 쥐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야유를 퍼붓더라도 쓸 것이 있다면 펜을 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집필 신념이다.

“소설은 문학을 전공한 문학도로서 언젠가 한번은 써야 할 것 같아서 집필을 한 것이다. 책 몇 권 냈답시고 작가 행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의미 없는 책 한 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또 팔리지 않는 책들은 또 얼마나 많이 땅속에 묻히는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 내는 작업을 남발하고 싶진 않다.”

인터뷰 와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은 이씨의 소박함.

‘무소유는 아무 것도 가지지 말고 가난뱅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뜻’이라는 스승 범정의 말을 따르는 계사승의 실천 때문인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사는 아나운서치곤 무척이나 검소해 보였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골 동네에 살면서 스스로 농사까지 짓는다는 까칠 까칠한 그의 손, 까칠까칠한 손을 사랑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이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여겨졌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인가.

〈이우영 기자 photoyw@print.or.kr〉

오사코의 최첨단 중철기를 만나보십시오

SADDLE STITCHER ESTAR

●사용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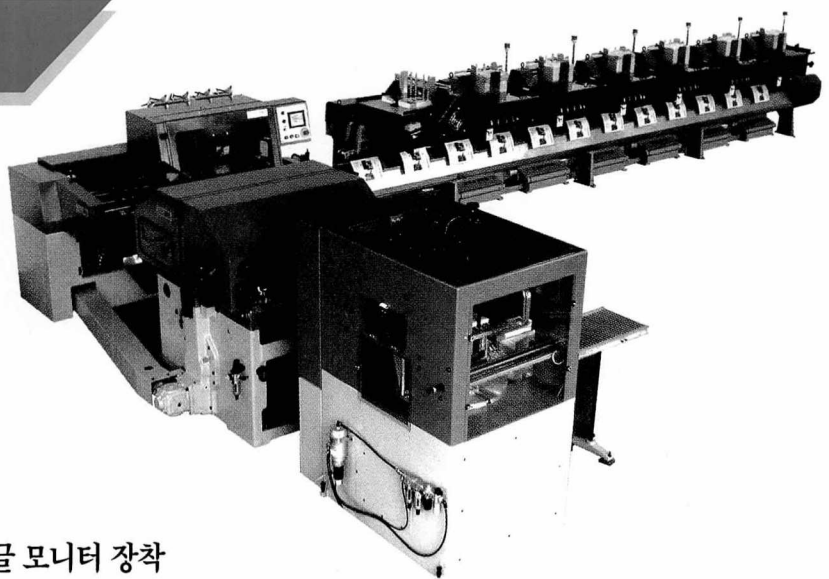
대부분 공구없이 기계의 각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5인치 모니터시스템 및 터치패널을 도입, 간단히 기계를 셋업해 제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최첨단 오사코 중철기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안전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커버는 작업자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5인치 한글 모니터 장착

한글로 지원되는 5인치 모니터는 기계조작, 여긔남·처짐 검사장치, 철사 검사장치 등의 설정 및 각 기계의 정지표시와 오퍼레이터가 각 기계의 조작 및 각종 기계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OSAKO  한국 오사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2-20번지 (동원빌딩 303호)

전화: (02)2658-1852, 1858
팩스: (02)2685-1858